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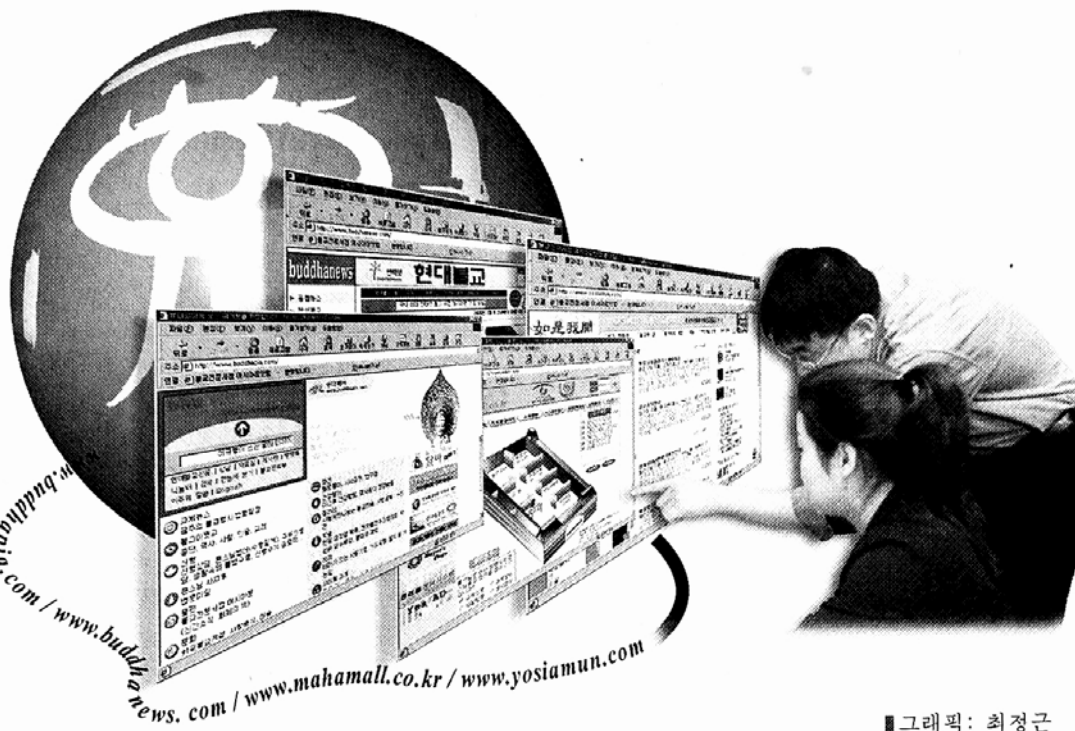
21세기 꿈의 포교 펼칠 '불법의 바다'

현대불교가 세운 4대 사이버 도량

21세기 인류에게는 새로운 땅이 생겼다. 국가와 인종,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땅, 가상공간에 펼쳐진 이 땅은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그물망에 의해 그 깊이와 넓이의 가시(可視)조차 초월한 중중무중의 세계다. 한 대의 컴퓨터로 5대양 6대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실시간으로 듣고 보는 현대인들에게 사이버 세상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1994년 10월 15일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표방하며 창간된 현대불교신문은 사이버 세상도 분명 한 부처님의 세상이라는 신념으로 불교정보화 사업을 다양하게 계획 진행해 왔다. 그 결과 95년 8월 불교종합정보센터 '부다피아'를 개설해 이듬해 3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부처님의 이상세계, 즉 불국정토를 의미하는 부다피아의 출범은 인터넷 세상을 향한 초진법륜이었다. 이후 현대불교신문은 99년 1월 인터넷불교백화점 '마하몰'을 개점했으며 금년 6월 1일에는 세계 초유의 불교전문 사이버 일간신문 '부다뉴스'를 창간하고 10월 1일에는 사이버 불교서점 '여시아문'의 문을 열었다.

이로써 현대불교신문은 21세기의 사이버 세상을 진정한 부다피아로 만들기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매일 매일의 세계불교 소식을 들을 수 있고, 각종 불교 정보에서부터 부처님의 사자후까지 법향(法香)을 체험할 수 있는 곳, 한번의 클릭으로 읽고 싶은 불서와 갖고 싶은 수행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 현대불교신문사가 사이버 공간에 구축한 아름답고 편리한 도량(道場)들을 소개한다.



그라픽: 최정근

부다피아 (buddhapia.com)

부다피아는 불(Buddha)과 이상향의 세계를 뜻하는 유토피아(Utopia)의 합성어로 명명되어 96년 3월 일주일을 활짝 열었다. 부다피아는 서비스를 개시한 직후인 96년 5월 미국의 유명 정보잡지 기판인 링크스타로부터 "한국불교를 전해주는 가장 우수한 사이트"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후 부다피아는 그 이름에 걸맞게 세계적인 불교종합정보 서비스 웹사이트로 자리를 잡아 왔으며 지난 4년간 2만여명이 접속한 정보를 검색했다.

현재 부다피아는 불교인물과 사찰에 대한 데이터 제공은 물론 한미유선, 한국 불교재단협회, 대한불교천주교, 맑고향기쁨 등 20여 사찰 및 단체의 홈페이지로의 연결도 가능하게 구축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인터넷의 생활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부다피아가 전하는 불교계의 각종 소식들도 다양하다. 국내외 불교관련 뉴스를 매일 새롭게 접할 수 있으며 이에

일 서비스를 통해 네티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서비스 하기도 하는 것, 무엇보다 부다피아는 인터넷을 통해 현대불교신문을 꼼꼼히 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정보의 축적능력을 갖추고 있다. 창간 이후 현재까지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수록 내용들을 주제별로 검색해 볼 수 있다. 국내외 크리스님들의 법문과

**4년간 2만여명 클릭
며서 우수 사이트 평가**

건강, 문화, 사찰기행, 각 종단 소개, 기초 교리 등 수행생활을 돕는 정보들도 많이 검색되는 코너로 각광 받고 있다.

부다피아는 단순히 정보와 데이터를 전해주는 사이트로 만족하지 않는다. 세계 불자들의 수행과 수행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이버 도량으로 자리매김 해 나가기 위해 보다 다양한 내용적 변화와 기술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부다뉴스 (buddhanews.com)

세계 초유의 불교전문 사이버 일간 신문이다. 부다뉴스는 지난 6월 1일 창간되어 짧은 시간에 많은 독자를 확보했으며 날로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불교계의 소식들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전달하는 것으로도 부다뉴스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거기에 부다뉴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획기사와 부다피아와, 책방여시아문, 마하몰 등과의 연계 검색기능 등은 부다뉴스를 더욱 빛나게 하는 매뉴얼이다.

현재 부다뉴스는 매일 30여 건의 새로운 기사들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각 종단 소식은 물론, 문화 출판, 학술 어린이, 청소년, 여성, 수행소식 등으로 나누어져 제공되는 이들 기사는 현대불교신문의 일선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송고 해 오는 뉴스들을 가공해 제공하는 것이어서 100%의 신선도를 자랑한다.

기획특집 코너는 부다뉴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사들로 채워져 있다. 불교계의 핫 이슈들을 따로 모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네티즌들의 이해를 돕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며 수행생활을 돕는 상담실과 구직 구인 풍선이 안내 기능도 갖추고 있어 교계 안팎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N세대들이 불교를 보다 재미있

**불교 첫 사이버 일간 신문
실시간 쌍방향 정보 자랑**

게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N세대를 위한 불교 이야기 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설문조사 코너에서 취합되는 데이터들은 현대 불교 신문 제작에도 반영되고 있다.

부다뉴스는 일간 신문의 개념 위에 쌍방향 정보교류를 통해 네티즌이 함께 만드는 사이버 포교당이라는 개념을 더한 인터넷 시대의 불교종합 정보매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마하몰 (mahamall.co.kr)

마하몰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 - 아름다운 사이버 불교세계'라는 슬로건으로 98년 서비스를 시작한 불교계 최대규모의 전문 인터넷 백화점이다. 현재 마하몰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은 3천여 점에 이른다. 월 평균 5만여명이 방문하는 마하몰은 99년 6월 제1회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 사이버몰로 선정되기도 했다. 마하몰을 클릭하는 순간 가상 공간에 구축된 매장을 만날 수 있으며 매장은 신상품, 추천상품, 음반코너, 개인전 전시관, 중국문화대전, 서점, 회원가입 등의 코너로 짜여져 있다. 이 밖에도 마하몰 초기화면에는 불교소품, 공예문화상품, 팬시 기획, 건강상품, 음반, 소프트웨어, 사이버서점 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구입을 원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매장을 순회하면서 원하는 상품의 특징과 가격 등을 상세히 검색해 볼 수 있어 물건 고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신상품과 추천상품은 따로 볼 수 있도록 분류해 두어

**월 5만 방문... 불교 백화점
작년 산자부 우수몰 선정**

더욱 편리하다. 마하몰은 선불제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소액결제 반복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미리 일정액을 온라인 상으로 입금한 후 구매시마다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 이용시 3%의 부가 금액을 이용할 수 있는 잇점도 있다. 마하몰이 운영하는 보너스 포인트제도 역시 값 싸고 좋은 물건을 구입하고 그 실적으로 다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 제도다. 마하몰은 철저한 회원관리는 물론 정직한 가격과 확실한 상품 배송, 고객편해소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가입에서 배송 확인, 개인정보 수정 기능과 안내데스크를 갖추고 한 번 고객은 영원한 단골손님으로 모신다는 서비스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 또 마하몰 갤러리에는 불교 예술인들의 작품을 다양하게 전시하고 있으며 해외문화 정보, 뉴스따라잡기, 게시판, 교계탐방 코너 등도 운영하고 있다.

여시아문 (yosiamun.com)

여시아문은 현대불교신문사가 운영하는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을 사이버 공간에 그대로 옮겨 놓은 온라인 서점이다.

지난 1일 인터넷 공간을 연 여시아문은 약 3만여명의 불교도서 8만여권을 비치하고 있다. 여시아문을 클릭하는 순간 네티즌들은 "이렇게 다양한 불서를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니!" 하는 감탄을 하게 된다. 온라인 서점 여시아문은 도서 구입을 위한 네티즌들의 편의를 위해 도서 목록을 종류별로 매우 상세하게 분류해 원하는 도서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전, 교리, 입문서, 교양일반, 명상, 문학 등 다양하게 분류된 불서들은 회원가입 절차만 거치면 언제 어디서나 구매가 가능하다.

**국내 최대 사이버 서점
불서 8만권... 안방 주문**

여시아문은 각 출판사가 펴낸 신간불서들을 표지 사진과 함께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 책 고르는 재미도 솔솔하다. '금주의 불서 베스트

10' 코너는 매주 여시아문의 판매량을 종합해 소개하고 있으며 한글대장경 검색서비스와 전설로 찾아가는 사찰 등의 코너도 운영되고 있다. 여시아문 통해 불교계의 주요 뉴스들도 볼 수 있으며 불교관련 비디오, 오디오 상품들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온라인 서점 여시아문은 도서출판 여시아문과 함께 '자신의 글을 책으로'라는 기획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시, 수필, 체험수기 등 불자들이 스스로 쓴 글을 해당 코너로 보내면 그 글들을 심사해 책으로 펴내는 것으로 아마추어 작가나 수행 현장에서 남다른 사연을 가진 불자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현재 여시아문은 온라인 서점 개점과 현대불교신문 창간 6주년을 기념하는 사은 행사를 갖고 있다. 온라인 서점 여시아문의 회원으로 등록한 불자가 '동자도우미 페이저'를 10월 30일까지 출력해 오면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발간한 불서를 선물로 준다.

온라인 서점 여시아문은 불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편리한 구입을 위한 서비스를 통해 사이버 서점의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四柱命理學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專門家用)神示出刊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전문가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難解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펼쳐 보기만하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법들을 요약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원하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 가 지지를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맛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揭示해 놓아, 미리 그 상황을 지적함으로써 來人의 顏色와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 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 등으로는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인태이가 남아있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인지,
- 부탁한 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치료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막부러지게 말해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가지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提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 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 있고, 居所를 떠나 부재중 일 때는 1시간 후론, 하루 후론, 일출 후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童 · 神童이 감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 · 무속인 · 스님 등 活人專門人의 각인 주문만 받고 있습니다.

- 책 값 ₩250,000원
-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 (호박 가죽질제피지 · 금박 950페이지 · 미색종이 · 음쇄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리
- 배 달 : 입금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한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호 일식빌딩 303호

도서출판 卜 問 대표 김 나 리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이 책에 비해 비싸지는 합니다만 전문인용이므로, 이 책을 활용하여 획기적 명성과 학문성취함에 비하면 매우 싼 값 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책, 휴대용에 대해서는 이 책 9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지만, 그래도 혹, 의문되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 인 數卜 曉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접 보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여겨 지시면, 방문 또는 출장을 요청하십시오. 본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방문받거나 출장하여 活人요령을 도와드리도록 주신하겠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배

청동불상 제작 전문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청동 불상, 천불, 삼천불, 만불, 개금, 탕화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드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향빌딩(1층)
성화불교전시관 · 성화불교미술원

전시관 : 02)2209-0080, 0081
공방 : 031)591-1022 핸드폰 : 011)302-1022

※ 청동불 40여본 전시중 ※